

‘일본체험(日本體驗)’과 ‘성정치(性政治)’

—위다푸(郁達夫)소설의 成敗得失에 대한 이중적 고찰

沈慶利*

<목 차>

1. 문화 충격 : 성관념(性觀念)에서 부터 시작
2. 일종의 서술 범례 : 애정의 고통과 민족굴욕의 교차
3. ‘일본체험’과 위다푸소설의 서사주제
4. ‘일본체험’과 위다푸 후기 소설 창작의 곤경(困境)

언젠가“만약 루쉰(魯迅)이 일본에 유학하지 않았다면‘국민성’이론이 중국현대 문학에서 제기될 수 있었을까”라고 누가 물은 적이 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의 제기는 적어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은 관점을 일깨우게 한다. 즉 루쉰이 몸소 체험했던 일본문화의 강한 충격과 그가 어느 정도 받은 일본의 계몽사상가의 영향 때문에 비로소 ‘국민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중국현대문학의 계몽주류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 문제 자체로만으로도 ‘일본체험’이 중국현대작가에 있어 절대적일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족히 드러내고 있다.

루쉰 등의 작가들이 일본문화의 긍정적인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중국 그들의 작품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은 중국유학생이 일본에서 감내 해야 했던 민족 굴욕과 심한 고통이었다. 이 점은 위다푸 소설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위다푸가 문학영역에서“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있었던 것은 그의 배후에 그 거대하고 짙은 ‘일본 배경(日本背景)’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 본인이 일본에서 실제 생활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위다푸

* 北京師範大學 中文係 教授

는 <침륜>등의 작품을 통해 주인공(혹은 작가자신)을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문화충격감과 여러 심리적 불안증을 일으키게 설정하고 또한 이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해주어 많은 독자들의 심리적 공명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통해 그는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확고한 지위를 굳힐 수 있었다.

1. 문화 충격 : 성관념(性觀念)에서 부터 시작

성(性)은 인류생활의 가장 기본내용 중 하나이며 또한 인류문화의 중요한 기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공통된 것이지만 각기 다른 민족들이 각기 달리 걸어온 기나긴 역사의 발자취 속에서 각 민족의 독특한 문화 전통을 형성시켰다. 따라서 확연한 차이를 지닌 성 관념과 성도덕은 서로 다른 민족들 간의 현저하고 직관적인 문화차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차이는 가끔 사람들이 타 문명형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서로 다른 문명형태 간에 일어났던 분쟁과 모순을 만약 그 내부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보면 성도덕 관념이 그 배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성간의 솔직하고 자연스러움과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모습(야마토(大和)민족의 가장 독특한 문화전통 중 하나이다. 일본인의 성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는 가끔 처음 일본에 온 많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큰 충격과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전통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은 중국 문인들

1) AD 1596년 조선의 일본통신사 黃慎등이 일본을 다녀오고 나서 쓴 <日本往還日記>에 보면 당시 일본인들의 습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한 부분이 나온다. 즉“男女混處，露體相狎而不相羞愧，與客戲狎，无所不至，……至嫁娶不避甥妹，父子并淫一娼亦无非之有，真禽獸也。”(日梅忠棹夫，多田道太郎編：<日本文化的構造>，日本講談社1973年版，21쪽) 마찬가지로 개방적이라고 자처 하는 서방인들조차 처음 일본에 오고 나서 이와 비슷한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몇 천 년 동안의 중국봉건문화는 줄곧 사람들에게 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즉 부부는 ‘잠자리에서의 쾌락(床策之歡)’에 빠져서는 안 되며 “(남녀의 관계는)후대를 잇기 위한 것이어야 되고 성적 쾌락이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爲後也, 非爲性)”라는 종류의 황당한 교리를 읊조려야 했다. 남녀 간의 정상적인 만남과 열정적이고 진실한 감정을 ‘洪水猛獸, 不逆不道’라고 여겼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만남과 감정은 ‘삼강오륜’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 관념의 영향을 받은 중국 현대 문인들이 갑자기 일본이라는 ‘성개방’의 사회 문화 환경 속에 놓여 졌을 때 어떤 문화심리 충격을 가질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위다푸의 <침륜>등 소설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이러한 심리적 충격의 전형적인 스토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필자는 <침륜>속 주인공 ‘그’가 겪는 모든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거의 모두가 중일 양국문화 간의 심층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성관념과 성도덕의 차이, 이로부터 야기된 충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도쿄라고 하는 ‘모던’적 국제화 대도시는 거의 도처에 성의 유혹으로 가득했고 이러한 유혹 앞에서 그는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이 단지 본능의 명령에 조용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받아온 교육은 그에게 수시로 이것은 치욕적이며 부도덕한 것이기에 ‘성인군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인공 ‘그’는 완전히 “‘타락’ 자책—더 깊은 ‘타락’ 더 강한 자책”이라는 일종의 악순환의 심리적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엔 이 모든 후회와 자책이 그의 가슴속에 짓눌려져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감당하지도 도피할 수도 없게 만들게 되었을 때 그의 앞에 놓여 진 것은 단지 자살로 그 길을 벗어나는 것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소설의 마지막부분에 주인공 ‘그’는 결국 바다 속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게 된다. 이는 후회와 자책이 극에 달한 결과이며 또한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 심령의 철저한 해방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²⁾

2) <沉淪>과 중일 문화관념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자가 <문화충격과 문화연모—이국문화 시각에서 해독해 본 郁達夫의 沉淪(文化震憾与文化戀母—從異國文化視角解讀郁達夫沉淪)>에서 상세히 분석한 바 있기에 여기서 따로 논하지 않는다.

<침륵>과 마찬가지로 <남천(南遷)>, <공허(空虛)>등 작품 속에서의 “문화 충격”도 대부분 성관념 측면에서 표현되고 있다. <남천>의 일본소녀 M이 매일 세수를 할 때 “우선 상의를 완전히 벗은 그녀는 가슴을 완전히 드러내어 伊人은 그가 이 일어나 세수할 때 매일 그녀의 그 드러난 몸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그의 머리 아픈 병은 나날이 기증되었다.” 특히 중국유학생 伊人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M이 수시로 그와 함께 여행가자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오후에 “伊人이 마침 낮잠을 자고 있을 때 M혼자 소리도 없이 조용히 이층으로 올라와 그의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다.” 여기서 M은 주동적인 ‘침범자’, ‘박해자’였고 이에 비해 伊人은 마치 단지 한 마리의 “사람 임의대로 찢겨지는 희생양”처럼 그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M에게 있어 이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의 유희”이자 한 차례의 원시적 정욕 해소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중국유학생 伊人에게 이는 확실히 심령의 큰 재난이자 영혼의 지극한 고통과 충돌이었다.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伊人의 원래“아주 건강한”신체는 심하게 약해져 갔다.

<공허>에서의 낯선 일본 소녀는 비바람 몰아치는 한밤에 갑자기 중국유학생 質夫의 방에 들어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하길 “…… 미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운이 안 좋은지 하필이면 어머니가 안 계시는 오늘밤에 이렇게 큰 비바람이 불어대네요…… 하지만 오늘 밤만 여기서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한 비바람소리에는 도저히 저 큰 방에서 혼자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소녀는 아주 담담하게 비스듬히 質夫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잤으나 중국 ‘성현’의 책들을 두루 읽은 質夫는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령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가 ‘눈앞에 그 소녀의 부드럽고 새하얀 목덜미를 바라보고 희미하게 들리는 그녀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머리 속에는 “그녀를 대신해 옷을 벗겼다. 그가 그의 배와 허리부분을 연상할 때 그는 긴장해서 숨조차 내 쉴 수 없었다…….” 논자가 이 부분을 인용할 때 인물을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 느끼게 하는 심령의 고통에 대해 감탄하곤 한다. 물론 이는 확실히 훌륭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소위 말하는 그‘특수한 상황’이 만약

중일 양국 간 두 종류의 문화 관념의 충돌과 모순이라는 것을 벗어난다면 그 존재의 최소한 근거도 상실되게 된다.

일본의 양성(兩性)간의 개방적인 관계와 자연스러운 접촉은 확실히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또 중국의 전통적 유교사상에 깊이 물든 위다푸를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고 있다. 그는 수시로 특수한 충격과 ‘유혹’을 느낄 뿐 아니라 철저하게 그 유혹에 빠져들었으며 또한 이로 인해 본능적 반감과 증오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아주 예쁘게 치장한 일본 소녀들은 모두 “육감적인 미인”으로 변하게 되어 마치 시도 때도 없이 남자를 “유혹”한다. 이들은 위다푸의 작품 속에서 ‘요부’와 ‘화근(禍根)’의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伊인과 質夫같은 이들을 철저하게 고통과 시달림을 당하게 만든다. 이는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전통문화를 교육받고 그것에 영향 받은 사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중국특색의 봉건문화전통이란 것이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추악한 관념과 성에 대한 죄악감을 형성시키고 한쪽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악하고 음탕한 것으로 성을 보게 하고 그러한 성을 추악시하게 만들었다. 위다푸 작품 속에서의 남주인공들은 아주 현저하게 이러한 문화 심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중국의 전통적 성도덕관을 고수하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그 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열한 태도로 여성의 육체에 대해 거의 색정적일 만큼 ‘옛보기’눈길을 보이고 있다. 이 ‘옛보기’ 눈길은 <침륜>에서 이미 식상할 정도로 여러 번 보여 지고 있다.

…… 그는 마치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녀 무릎 위에 놓여 진 부드럽고 하얀 두 손과 옷 틈 새로 드러난 분홍색 치마를 훑쳐보았다. 원래 일본의 여자들은 모두 바지를 안 입는데 그녀들의 몸을 가리는 것은 단지 짧은 치마뿐이다. ……여자들이 길을 걸을 때면 앞의 옷섶이 발걸음 내딛을 때마다 벌어져서 그 분홍색 치마가 허벅지 사이로 드러나 보이는데 매번 훑쳐 볼 수 있다.

위다푸의 이러한 소설은 객관적으로 중국전통 예교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중국전통문화에 “교양”되어져 나온 병태적인 문화 심리적 인격체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마치 갇혀서 길러진 ‘온실에서 어린 싹’처럼 외부의 ‘거센 비바람’에 얼마나 나약하게 쓰러지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위다푸의 <침륜> 등 소설이 가지는 특수한 의의이다. 만약 중화민국 초기에 출현해 일본문화에 대해 ‘구제할 방도가 없을 정도로 오독되어진’ <留東外史> 등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위다푸 소설의 그 독특하고 심오한 문화심리 의의는 더욱더 확연히 드러난다. <留東外史> 등의 작품 속에서 우리들이 수시로 보게 되는 것은 작가의 외국문화에 대한 무지와 편견뿐 아니라 의식 깊은 곳에 뿌리 깊게 박힌 ‘대국심리’와 문화우월감이었다.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문화 분위기를 음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추악화시켜 일본여자들을 모조리 정조관념이 없고 수시로 중국유학생들을 “유인”하는 ‘성적동물’로 묘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려한 필치로 이러한 중국유학생들이 얼마나 ‘떳떳하게’ 타락해 가고 ‘공명정대’하게 침륜하는 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위다푸의 <침륜> 등 소설 속에 충만한 ‘각성한 사람’의 진실 된 소리, 조금도 거짓 없는 자이분석과 참회와는 확연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2. 일종의 서술 범례 : 애정의 고통과 민족굴욕의 교차

위다푸는 그가 일본에서 느낀 가장 큰 고통 중 그 하나가 ‘남녀 양성 간의 여러 관계들’이고 또 다른 하나가 ‘국제간의 큰 비애’라고 스스로 말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일본에 있었던 바로 시기에 그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국제경쟁의 장에서 우리 중국의 위치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했다. 위다푸는 또한 “국제지위의 불평등한 결과와 약소민족이 당하는 굴욕과 업신여김이 가장 절실하게 또 가장 견딜 수 없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남녀 양성 간에 사랑의 신이 날린 독이든 화살을 맞는 그 순간이다.”³⁾라고 아주 격양되게 말한 적 있다.

3) 郁達夫, <雪夜一自傳之一章>, 1936年2月16日<宇宙風>第11期.

그렇다면 왜 남녀 양성 간 사랑의 고통이 가장 전형적이고 직접적으로 국가, 민족 간 불평등의 “큰 비애”라는 결과를 낳게 하는가? 이는 성문제가 아주 민감하게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할 뿐 아니라 또한 미국의 여성주의학자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의 <성의 정치학>⁴⁾속 관점처럼 부권사회 배경하의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하는 억압과 지배는 종족, 계층, 계급 간의 억압 및 지배와 본질적으로 일치하며 따라서 양성관계는 종족관계 및 계급관계와 마찬가지로 모두 ‘정치관계’에 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필자가 생각하기에 밀레트의 이 관점은 급소를 찌르는 정확한 분석이며 많은 것을 일깨우는 분석이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여성은 줄곧 지배와 억압을 당하는 위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성의 부속물로 전락되었을 뿐 아니라 남자들 간의 쟁취와 약탈의 목표물인 귀중한 “물품”이나 ‘재산’쯤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들은 인류사회의 공통된 한 현상을 엿볼 수 있는데 즉 불평등한 양성관계와 불평등한 계급, 종족 및 민족관계가 문제에 처해졌을 때 ‘(여)성자원의 분배에 있어 줄곧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등급사회 특히 동양의 전제주의 사회에서 제왕(최고 통치자)는 수많은 후비들을 거느렸을 뿐 아니라 이론상 천하의 모든 여성들을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성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제왕이외의 귀족, 사대부 등 ‘고위 남자’들은 서너 명의 처첩을 소유하는 것이 일종의 권력과 신분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러나 사회 밑바닥의 많은 보통남성들은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조차 없는 비극적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남자들이 여자를 욕망의 대상과 지배 및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게 강국, 대국의 약소국 및 약소민족에 대한 지배도 실질적으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 종족 및 민족과 국가 간의 불평등은 ‘(여)성자원’에 대한 약탈과 점유에 있어서 가끔 가장 현저하고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서양 남성은 완전히 그 국가와 종족이라는 우위를 이용해 동양여성의 주동적인 ‘헌신’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약소국인 동양남성은 서방 강국의 백인여성에게 강한 열망을 가지고

4) Kate Millett, *Sexual Politics*(凱特·米里特: <性政治>), 宋文偉 譯,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0年版.

있더라도 결국 헛수고로 끝나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필자가 보기에 밀레트의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특정한 시각으로 서로 다른 종족과 민족 및 국가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은 논점을 들어왔다. 즉 모험을 즐기고 용감히 매진하는 서양남성에게 있어서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아름답고 생소한 동양의 땅은 마치 신비한 베일을 쓴 채 조용하고 얽전한 아름다운 여자와 같은 곳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종의 남녀양성의 이원적 관계는 오히려 또 다른 동서양관계를 해석하게 한다. 즉 중국현대작가에 있어서도 모든 서양문명을 마치 난폭하고 이기적이며, 교만하고 잘난 척 하고, 성적 매력이 가득한 젊은 아가씨로 여기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성적매력이 가득한 서양아가씨는 비록 동양 남성문인들의 욕망의 대상이지만 절대 서양남자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동양여성처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그의 품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녀는 먼 곳에서 와서 그녀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중국지식인들을 아주 도도하게 조롱 하는 듯한 눈길로 멸시할 따름이다. 그러나 중국 현대 문인들은 그녀의 매력에 우물쭈물하며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한편으로는 굴욕 속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증오와 분노의 정서 속에서 그녀의 매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면 왜 그렇게 많은 현대 중국작가들이 끊임없이 동일한 “이야기” 동양남자가 서양여성에게 ‘교란’당하고 거절당하는 ‘실연(失戀)’을 쓰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현대 중국 작가들 대부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양성 간 애정의 고통을 통해 민족굴욕과 불평등의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필자는 위다푸의 <침륜>이 20세기 20년대 중국사회에 이처럼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를 이 작품이 당시 사람들의 가장 민감함 화제, 하나는 성문제 즉 ‘개성해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족굴욕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성의 고통과 민족굴욕이라는 이 두 가지 연결고리가 <침륜>의 가장 기본적 감정요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소리”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침륜> 이후에 쓰여진 <위장병(胃病)>이 표현하고 있는 약

소국민의 굴욕과 고국에 대한 향수도 <침륜>속에 표현된 감정의 또 다른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중국유학생이 일본소녀를 사랑했지만 그 소녀가 자기의 연인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결국 ‘눈이 붉어지도록 울고’나서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조만간 망할 나라의 국민입니다. 가세요, 다시 질 찾지 마세요.”라고 그에게 말한다. 이 중국유학생은 결국 사랑을 얻지 못하여 우울증으로 죽게 된다. 그러나 <침륜>과 비교했을 때 이소설의 주제 의식과 감정의 강도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위다푸의 또 다른 소설 <남천>은 두 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주인공 伊人이 동경의 대도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보슈(房州)의 해변으로 요양을 오게 되는데 여기서 젊고 아름다운 일본 여자 O를 만난다. 두 사람은 처음에 진지한 정신적 교감을 경험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역시 O를 짝사랑 하는 일본 청년 K의 질투를 받게 되어 伊人이 추구하는 ‘정신적 사랑’은 결국 얻지 못하고 만다. 또 다른 스토리는 주인공의 회상을 통해 전개되는데 伊人이 작년 동경제 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N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하숙하고 있었는데 집주인 M여자가 먼저 伊人을 여러 차례 ‘교란’과 ‘유혹’을 하고나서 결국 나중에는 또 다른 남자의 품에 간다는 내용이다. 伊人은 이러한 타격과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분개하여 말도 없이 떠난다. 작가는 이 두 스토리를 하나로 묶어 伊人의 애정 추구에 있어 영과 육의 이중적 실패를 교묘하게 암시하고 있다.

비단 위다푸의 일본을 배경으로 한 모든 소설을 ‘애정고통과 민족굴욕의 교차’로 개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머뚱, 장즈핑(張資平)등 일본에 생활한 적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도 대부분 이 서사 주제의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즈핑의 처녀작 <約檀河之水>는 중국유학생 ‘그’와 집주인 딸 간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이다. 두 사람은 2개월간 사랑의 금과를 몰래 훔쳐 먹은 다음 중국유학생 ‘그’가 집주인 딸을 떠나 다른 지방에서 실습활동을 할 때 그녀의 이모가 이들 사이를 방해하여 이모의 강압 하에 이모를 따라 동경에 가게 주인집 딸은 그곳에서 일본 대학생을 사귀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실의의 슬픔에 빠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라오서가 영국에서 창작하고 런던을 배경으로 쓴 작품 <마씨 부자(二馬)>도 소

설 전체에 걸쳐 전개되는 ‘애정비극’을 통해 심도 깊은 민족굴욕을 표현하고 있다. 중국에서 온 마씨 부자는 동시에 주인집 모녀(윈더부인과 마리)를 사랑하는데 마지막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모두 실패로 끝난다. 윈더부인이 종족, 국가 간의 큰 격차를 이유로 아버지 마씨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든 그의 아들이 마리에 대한 짝사랑이든 모두 어쩔 수 없는 민족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작가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똑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똑같은 문화심리정서에 영향을 받았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제3국가(낙후된 국가)의 남자가 서구 선진국가의 ‘고귀’한 여성에 대한 연모와 실연에 대한 스토리를 만약 서양문학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백인남자와 동양여성간의 낭만적 사랑과 비교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

3. ‘일본체험’과 위다푸 소설의 서사주제

만약 위다푸가 7살 때(1913년 9월) 큰 형님을 따라 일본으로 유학 간 때를 시작으로 그가 1921년 6월 상해로 돌아와 <창조>계간을 편집할 때 까지를 계산 한다면 그가 그 이후에 몇 차례 일본에 잠시 머문 때를 제외하더라도 위다푸의 일본체류 기간은 최소한 8년이나 된다. 이 8년의 시간이 공교롭게도 위다푸가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에서 일약 “성공한” 저명작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위다푸가 직접적으로 일본을 서술배경으로 한 소설은 <은회색의 죽음(銀灰色的死)>, <침류>, <남천>, <위장병>, <공허>, <향수병 환자(懷鄉病者)> 등 6편에 불과하여 그가 일생동안 창작한 50여 편 전체 소설과 비교했을 때 “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작품이 위다푸의 전체 소설 창작에서 차지하는 그 의의는 조금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비록 그의 후기 작품인 <과거(過去)>, <늦게 핀 월계화(遲桂花)> 등의 작품이 언어나 기교면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성숙해 졌지만 일본배경의 작품들은 위다푸의 정신적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으며 그가 문

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대표적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위다푸가 이국(일본)을 배경으로 한 몇 편의 초기 소설에서 확립한 서술모드는 그의 전체소설 창작을 줄곧 관통하고 있다. 첫째로 <탈출(出奔)> 등 몇 편의 개별 작품을 제외하면 위다푸의 모든 소설이 아래와 같은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랑의 추구하고 실패” 혹은 ‘얻고자 하는 것의 못 얻음’에 대한 고통이 그것이다. 이 주제모드는 위다푸의 첫 소설 <은회색의 죽음>에서 이미 확립되었고 이후에 <침륜>, <남천> 등의 작품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더 강화되었다. 만약 일본을 서술배경으로 한 그의 초기작품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는’ 서술모드에 치중(주인공은 소설 결말부분에서 자살 혹은 질병으로 죽거나 거의 죽을 직전에 처해진다)하고 있다면 그의 후기작품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지만 이로부터 욕망이 정화”된 모드에 치중하고 있다. 주인공은 역시 광적인 욕망의 혼란 속에 처해지지만 동양식의 자기억제와 승화의 길을 걸어 가며 그 내면의 심리적 충돌이 점점 약화된다.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春風沉醉的晚上)>에서의 ‘나’와 陳二妹, <과거>에서의 三妹와 李白, <늦게 핀 월계화>에서의 郁선생과 蓮은 모두 처음에 싹 텄던 정욕의 씨앗이 나중에는 ‘영혼의 정화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는 작가본인의 연령의 증대 및 경험의 풍부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위다푸의 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민감함은 “일생동안 전혀 소설되지 않고 있다”. 사랑 때문에 죽고 애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거의 위다푸 소설 속 모든 남자주인공들의 공통된 특징들이다. 그들은 시중 성과 사랑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가하는 ‘상해(傷害)’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다푸가 토로해 내고 있는 ‘생의 고통’은 비록 그 속에 금전과 지위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애에 대한 갈구가 시중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그 원인을 그의 청춘기 때 일본에서 받았던 ‘강한 자극’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위다푸 소설 속에서의 주인공들은 그것이 일인칭인 ‘나’이건, 삼인칭의 ‘그’이건 이들과 외부환경 사이에는 시중 긴장과 근심의 대립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이러저러한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소설 스토리에 등장하고 나서 금방 주위 환경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 있다. 즉 주인공은 항상 끊임없이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 <침류>에서의 ‘그’는 매번 ‘범죄’한 후에 항상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다. 그가 여관에서 집주인 딸이 목욕하면서 드러낸 “그 한 쌍의 눈과도 같은 기슴! 그 하얀 허벅지! 몸 전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훑쳐보고 나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도망치듯 그 여관을 빠져 나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그가 “산위의 매화밭으로 이사 온 후 그의 우울증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 왔다.” 그는 또 ‘음식을 몰래 훑쳐 먹은 들개처럼’ 남녀의 은밀한 밀어를 훑쳐 듣게 된다. <남천>에서도 마찬가지로 伊人이 일본소녀M에게서 ‘타격을 받은’ 후 그녀에게 작별인사도 할 용기도 없이 짐꾼을 시켜 자신의 집을 옮기게 되고 이에 M으로 부터 ‘너무 비겁하여 사내대장부 같지도 않다’라는 비웃음 까지 사게 된다. 伊人이 동경을 떠나 보슈(房州)로 온 후 또 다른 새로운 치명적 타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서사모드는 작가가 일본이라는 생소하고 이질적인 문화 환경에 처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부적응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귀국 후 쓰여진 많은 작품들도 여러 차례 주인공의 거주지 이동을 묘사하고 있다.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 <늦게 핀 월계화>등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막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와 생소한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 이는 위다푸가 고국—조국이라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질감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위다푸의 그 농후한 自戀정서와 거의 병적일 정도의 자아의식도 역시 그의 일본을 서술 배경으로 하는 초기소설 속에 확립되어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자아중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긍정은 청춘기 젊은이들의 가장 전형적인 심리특징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청춘기를 지나 성인의 문턱에 접어든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병적일 정도의 자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일종의 건강하지 못한 문화심리인격이다. 하지만 위다푸는 일생 동안 마치 진정한 ‘성숙’을 하지 못한 듯 하고 그의 문화심리인격은 마치 영원히 청춘기에 멈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사실이 왜 그의 작품들 속에서 영원히 상감(傷感)

적이고 자애(自哀)적인 ‘잉여자’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들은 어떤 경우 이미 결혼해 자녀가 있고 대학교수가 되었지만 심리적 연령은 여전히 이국타향인 일본에서 지내고 있는 <침륜>속의 ‘그’와 같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위다푸와 그의 작품은 청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더 확실히 말하면 심리적 불안과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초기 청년기의 사람들이다. 위다푸는 <침륜>등 이국 배경 소설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자아상을 확립했다. 즉 의지할 이 없는 고독감과, 극한 좌절과 굴욕을 경험한데다 생소하고 이질적인 문화 환경에서 표류하여 절실한 심령의 위안이 필요한 잉여자의 형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가 청년기를 벗어나고 문단에서 점점 더 명성이 높아졌을 때도 그는 여전히 전기의 작품에서 그랬듯이 슬픔에 울먹이며 도처의 사람들에게 심령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려는 젊은 시기의 자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때 ‘말만 바뀐 더 강한 슬픔’을 호소하고자 하는 느낌이 녹아있다. 귀국 후의 위다푸는 비록 여전히 종종 생의 고통과 욕구 불만족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일본체류 때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위다푸는 순조롭게 자아초월을 완성해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의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복과 단조로움의 느낌을 가지게 됨을 면치 못 하고 있다.

4. ‘일본체험’과 위다푸 후기 소설 창작의 곤경(困境)

비록 당시 절대 다수의 청년이 위다푸의 작품을 좋아했지만 어찌면 그 이유는 단지 위다푸 작품에서 그려 낸 자아형상속에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일종의 공감을 느껴 위다푸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심령의 고통을 발산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위다푸 작품의 ‘진실성’에 더욱더 가혹한 요구를 하게 만든다. 이는 작가가 토로해내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거짓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절대적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지극히 미미한 거짓과 꾸밈이

쉬여 있더라도 이는 마치 '눈 속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 위다푸의 <침륜>이 바로 그 어떠한 거짓이나 가식의 성분이 없는 작품이며 그 자신 스스로도 말하길 <침륜>을 창작할 때 "감정상 추호의 억지 성분도 드러나지 않았다. 단지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고 또한 그러한 감정으로 쓰면 된다고 느꼈을 뿐 어떤 기교로 쓸 것인지 어떤 문장으로 표현할 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마치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소리를 내지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때 그 누가 자신이 내지르는 그 소리가 저음인지 고음인지 혹은 옆에서 연주하는 악기의 음과 조화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겠는가?"⁵⁾

바로 이러한 거짓 없는 진실과 조금의 가식도 없는 감정의 토로 그리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심령의 부르짖음 때문에 <침륜>이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청춘기에 놓인 한 젊은이를 일본이라는 이질이고 '성개방'과 민족멸시가 가득한 환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그 모든 고통과 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위다푸 본인이 점점 "성인"에 근접해 갈수록 작품 속에서 어린이 티가 나는 그 자아상을 견지해 나가기가 더욱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이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의도적으로 이전의 자아형상을 그대로 견지해 나가는 것이지만 이때도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 없으며 게다가 위다푸가 만약 의도적으로 그러한 작품을 쓴다고 한다면 그 감동은 분명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선택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이전의 창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인데 애석하게도 '감상적 낭만주의자'인 위다푸에게 있어 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위다푸를 전에 없는 창작의 곤경 속에 빠뜨리게 한다. 따라서 그가 귀국 후 쓴 작품에서는 가식과 과장 혹은 꾸밈 등의 성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망한 밤(茫茫夜)>에서의 質夫가 기루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자신이 원하는 아가씨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첫째는

5) 郁達夫, 《余獨白—余集 代序》, 陳子善、王自立編:《郁達夫研究資料》(乙種), 廣州花城出版社, 1985年版.

못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이가 많아야 되며 세 번째는 찾는 손님이 적은 것이었다. 이는 質夫의 여성 특히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의 열등감과 자괴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質夫의 그런 특별함 뒤에는 현저한 가식과 꾸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비록 <늦게 핀 월계화>와 같은 성공적 작품 속에서 소설 주인공 郁선생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蓮 앞에서 보여준 “욕망의 정화”도 <침륜>등의 작품 속에서 충만했던 깊은 생명력을 지닌 심령의 소리와 비교 했을 때 가식적 성분이 많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이 뿐 아니라 전기의 일본을 서사배경으로 한 소설작품과 비교 했을 때 위다푸 후기의 일부작품은 감정의 토로 면에서도 점점 ‘독단적인 개인주의’경향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비록 그의 초기 작품 <침륜>등이 너무나 분명한 ‘작가의 자서전’ 성격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작품들이 많은 독자들 특히 청년독자의 공명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작가 개인의 진실한 감정토로에 기인하는 것도 그 한 이유였지만 이러한 감정자체에 강한 사회의의를 충분히 지니고 있었던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것이 오랫동안 받았던 봉건교육의 영향으로 인한 성에대한 고민과 성에 대한 과민증상 등 변태적 심리이든, 아니면 일본에서당한 민족적 굴욕과 무시로 인한 고독감 및 고국 중국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 등이었던지 이는 모두 당시 사람들의 공통된 ‘시대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귀국 후 쓰여진 몇몇 작품 가운데 동성애, 성변태 등에 대한 폭로성의 직접적 묘사는 서구 현대파 작가들만큼의 인성적인 심도에 미치지 못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인성의 오묘함을 관찰하는데 이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성적으로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게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작가는 단지 반복적으로 자신의 절실한 처지를 토로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들은 기껏해야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 속 주인공 및 작가본인에 대해 얼마의 동정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좀 더 모질게 말해 루쉰 작품 속의 祥林嫂처럼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행만 호소한다면 그 누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 듣고 있겠는가?

위다푸도 이후에 ‘새로운 길의 개척’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러한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연약한 여자(她是一个弱女子)>

리는 작품에서 주관감정의 토로와 자아의식의 폭로를 현저하게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묘사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소설 내용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작가가 그의 작품 속 여성인물의 심리세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鄭秀岳, 馮世芬은 완전히 피와 살을 지닌 인물의 형상이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개념의 부호에 불과하다. 鄭秀岳은 거의 원시적 정욕의 화신이며 그녀는 위다푸의 여성 의식에 대한 진부한 일면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현대작가 수쉐린(蘇雪林)은 다음과 같이 비평 한 적이 있다. “작품 속 여주인공이 추구하는 성욕 만족은 마치 미치광이와 같다……예술적 측면에서도 엉망이고 의도적으로 청년의 불만족을 불러일으키고…….”⁶⁾

필자가 생각하기에 위다푸는 창작 후기 때 확실히 진퇴양난의 창작적 곤경에 처해 있었다. 이 후 그가 먼 이국땅으로 간 것도 물론 국내에서 맞이한 인생의 실의와도 관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혹시 그가 소설 창작에서의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노력은 또한 아니었을까? 위다푸의 문학적 성공은 그의 독특한 일본체험과 떼어놓을 수 없다. 비록 그 체험이 온갖 인생의 모진 고통을 다 모아놓은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일본의 세례”가 없었다면 위다푸는 절대 문학사 속의 ‘위다푸’로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청춘기 때 일본에서 받은 “강한 자극”은 어쩌면 너무 강렬한 것이어서 위다푸로 하여금 그 평생 동안 자신의 “일본체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成敗蕭何’라는 말처럼 위다푸도 ‘成敗日本’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위다푸는 마지막에 일본제국주의 정권의 상징인 일본 헌병에 살해당함으로써 이국땅에서 객사했는데 이는 작가 위다푸의 문화 환경 속에서 배태된 하나의 가지 즉 군국주의문화정신과 또한 그것이 철저히 파멸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속에 모종의 예시적 무언가가 들어 있지는 않은가? 이 문장 또한 탄생 110주년을 맞이하는 위다푸에 대한 작은 기념이라고 봐도 상관없다.

6) 蘇雪林, <郁達夫論>, <郁達夫研究資料> (乙种), 제381쪽.

<參考文獻>

- 日梅忠棹夫, 多田道太郎編: <日本文化的構造>, 日本講談社1973年版
- _____, <문화충격과 문화연모—이국문화 시각에서 해독해 본 郁達夫의 沉淪(文化震動與文化戀母—從異國文化視角解讀郁達夫沉淪)>.
- 郁達夫, <雪夜—自傳之一章>, 1936年2月16日<宇宙風>第11期.
- Kate Millett, *Sexual Politics* (凱特·米里特: <性政治>), 宋文偉譯, 南京江蘇人民出版社, 2000.
- 郁達夫, <忏余獨白—<忏余集>代序>, 陳子善、王自立編: <<郁達夫研究資料>>(乙种), 廣州花城出版社1985年版.
- 蘇雪林, <郁達夫論>, <郁達夫研究資料>(乙种).

<中文提要>

鬱達夫的創作離不開他那獨特的日本體驗；沒有“日本的洗禮”，就絕不有文學史上的“鬱達夫”。鬱達夫通過《沉淪》等作品，將主人公處於異質文化環境中的震驚感，以及各種心理不適傳達給了讀者。它們的成功，在於將性愛苦痛與民族屈辱融為一體，觸動了當時人們最敏感的神經。但由於青春時期在日本遭受的“刺激”太過強烈，鬱達夫窮其一生都沒有走出自己的“日本體驗”，導致了他後期的創作困境。

關鍵詞：鬱達夫, 日本體驗, 性政治